

대인관계 패턴의 자기이해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최 명 식[†]

윤 아 랑

이 기 학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Connolly, Crits-Christoph, Shelton, Hollon, Kurtz, Barber, Butler, Baker 및 Thase(1999)가 개발한 대인관계 패턴의 자기이해 척도(Self-Understanding of Interpersonal Patterns: 이하 SUIP)를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SUIP를 번안한 후 전문가들의 평정을 거쳤다. 번안한 척도를 내담자 집단 56명과 일반 대학생 집단 222명에게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내적 합치도는 인식 점수의 경우 .62, .67이었으며, 자기이해 점수는 .63, .68이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인식 점수에서 .62였으며, 자기이해 점수에서 .47이었다. 또한 SUIP의 자기이해 점수와 정신과적 증상, 대인관계 문제, 자기개념이라는 구인의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감정과 사고의 개방성, 사려성 척도 등과 수렴타당도도 검증하였다. 덧붙여 이 척도의 이론적 시사점과 유용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인관계 패턴의 자기이해 척도, 자기이해 점수, 인식 점수

* 본 연구에 착수한 후 SUIP 척도의 원저자인 Connolly와 교신 중에 SUIP 척도를 개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직 출판되지 않은 개정판 척도를 입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상당부분 연구가 진척된 후이기 때문에 SUIP 개정판으로 연구하기보다 SUIP 원척도를 가지고 연구를 계속 진척시켰다. SUIP-R의 자세한 내용은 교신저자에게 연락하면 알 수 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명식, (121-742)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전화 : 02)705-8273, E-mail : cms552@hanmail.net

Freud(1914/1958)가 정신분석의 목표는 “증상 형성의 근원이 되어온 상황을 밝혀내고 이해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이래 자기이해는 심리 치료에서 변화를 위한 조건이자 변화의 결과로 인식되었다. 자기이해라는 용어는 이론적 문헌에서는 자주 통찰이라는 용어와 상호 교환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Connolly et al, 1999). 따라서 본 고에서도 상호 교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자기이해라는 구인을 객관적인 평정자가 평가할 수 있는 범주들은 여러 종류가 개발되었으나(정방자, 1985; Cummings, Martin, Hallberg, & Slemmon, 1992; Grenyer & Luborsky, 1996), 이 방법들은 평정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내담자들에게 직접 실시할 수 있는 보다 쉽고 간단한 척도의 개발이 요구되었는데 Connolly 등(1999)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보다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nnolly 등(1999)이 개발한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자기이해 척도를 번안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자기이해 또는 통찰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장호(1989)는 통찰을 2가지로 나누었는데, 정신분석적 의미에서 통찰은 내담자가 의식하지 못했거나 잘 모르던 동기, 관계, 느낌, 충동 등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Dewald(1978)는 자신의 심리적 갈등이나 문제를 의식 차원에서 이해하고 그 인과 관계를 깨달아 현실에서 자신의 정신 작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의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신의학에서도 통찰은 부적응적인 행동에 대한 자신의 심리 역동과 증상에 대한 의식적인 자각과 이해라

고 본다(Kaplan & Sadock, 1991). 이것은 무의식적 갈등의 의식화라고 하는 정신분석의 목표에 기초하여 내린 정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개념에서 통찰의 내용은 관찰할 수 없는 무의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에서 측정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그러나 현대 정신역동이론(Luborsky, 1984; Strupp & Binder, 1984)이 발달하면서 자기이해 또는 통찰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부적응적 관계 패턴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Strupp과 Binder(1984)는 통찰을 “아동기 대인관계 갈등 패턴을 반복하는 현재의 부적응적 행동 패턴을 정서적으로 경험하고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pp. 24~25). 자기이해의 개념이 바뀌면서 부적응적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기이해에 대한 경험적 측정방법은 그 정의에 따라 다양한데, 예를 들어 정방자(1985)의 경우 Dewald(1969)와 Ellis(1979)의 이론을 근거로 지적 수준에서부터 정서적 수준에 이르는 네 수준으로 통찰을 정의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수준 1은 자신의 문제의 선행적 원인과 타인의 문제원인을 깨닫는 단계이다. 수준 2는 전이관계에 대한 자각과 자기에 대한 수용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수준 3은 전이관계의 책임과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책임을 명확히 받아들이는 단계이다. 수준 4는 이상 3가지 수준의 통찰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변경시키고자 문제해결적 태도가 나타나는 단계이다. 정방자(1985)는 면담 내용을 이 네 수준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3명의 평정자는 내담자가 표현한 문장들을 이 네 수준에 따라 평정하였다. 또한 Cummings

등(1992)은 IEQ(Important Events Questionnaire)를 통해 수집된 내담자의 면담자료를 Insight Rating Scale(이하 IRS; Morgan, Luborsky, Crits-Christoph, Curtis, & Solomon, 1982)에 따라 내담자의 통찰 수준을 평정하였다. 이 척도는 내담자의 통찰 수준을 9개 수준으로 나누어 평정자들이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수준은 다음과 같다.

- 1) 환자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특정한 현상(사고, 정서, 행동)을 인식한다.
- 2) 환자가 행동의 습관적 패턴을 인식한다.
- 3) 환자가 자신의 증상과 경험에서 수동적 역할보다 능동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 4) 환자가 방어나 저항의 지표로써 특정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 5) 환자가 전에는 연결되지 않던 두 가지 문제를 연결짓고 그 즉각적인 관련성을 인식한다.
- 6) 환자가 전에는 무의식적 (억압된) 사고, 감정, 충동들을 점점 많이 인식하게 된다.
- 7) 환자는 현재 사건과 과거 사건을 연결지을 수 있게 된다.
- 8) 환자는 현재 경험과 아동기 경험을 연결지을 수 있게 된다.
- 9) 심리적 경험에 대한 환자의 인식이 점점 쌓여간다.

또한 Grenyer와 Luborsky(1996)은 Luborsky와 Crits-Christoph(1990)의 핵심갈등 주제에 입각한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숙달정도를 측정하는 척도(Mastery Scale)를 개발하였다. 간략히 소개하면, 1 수준은 충동조절력이 부족한 수준이다. 2 수준은 부정적 감정을 내사 또는 투사하는 수준이다. 3 수준은 이해력과 통제력에 어려움을 겪는 수준이다. 4 수준은 대인관계에 대한 자각이 생기는 수준이다. 5 수준은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자기이해의 수준이다. 6 수준은 자기 통제력이 발생하는 수

준이다. 이 척도의 4, 5 수준은 심리치료에서 정의하는 자기이해 또는 통찰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통찰 관련 연구들은 자기이해가 역동적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치료 요인이며 치료의 결과로 보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통찰이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방자(1985)는 30회의 정신역동적 상담을 받은 6명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내담자의 지적 통찰(1, 2수준)이 상담 후 반으로 갈수록 정서적 통찰(3, 4수준)로 변화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한 Kivlighan, Multon 및 Patton(2000)은 12명의 내담자가 20회기 동안 상담받은 내용을 IRS에 따라 분석한 결과 통찰 수준이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고 반면에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 점수는 감소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Grenyer와 Luborsky(1996)는 41명의 내담자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성공적인 상담의 경우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내담자의 대인관계 숙달 점수가 더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Connolly 등(1999)의 연구에서도 역동적 심리치료를 받은 33명에게 접수면접 시와 종결 시 SUIP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결과 자기이해의 양과 수준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의 입장에서 자기이해는 중요한 변화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Hill, Helms, Spiegel 및 Tichenor(1988)은 내담자의 자기보고이기는 하지만 모든 치료자의 개입 중 4%가 내담자로 하여금 통찰을 일으켰으며 내담자가 이러한 개입을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자기이해를 측정하는 대부분의 척도들은 내담자가 직접 자신의 통찰 정도를 평정

하는 척도가 아니라 평정자들이 상담내용 또는 내담자에 대한 면담내용을 기초로 평정하는 척도이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훈련된 제 3자가 측정하는 방법은 좋은 내용 타당도를 보이는 것은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내담자가 보다 쉽게 스스로 자기이해의 내용을 평가할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Connolly 등(1999)은 내담자가 직접 자신의 부적응적 대인관계 패턴에 대해 이해한 정도를 평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Connolly 등(1999)은 Grenyer와 Luborsky(1996)과 마찬가지로 Luborsky(1984)의 지지적-표현적 심리치료 모델에 기초하여 자기이해를 정의하였는데, Luborsky는 자기이해를 내담자가 부적응적 대인관계 패턴을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Luborsky와 Crits-Cristoph(1990)는 부적응적 대인관계 패턴을 핵심갈등관계 주제 방법(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method; 이하 CCRT)을 통해 정의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첫째, 내담자가 타인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내담자의 바람(wish, need, intention), 둘째, 내담자가 지각하는 타인의 반응(perceived response from other), 셋째, 타인의 반응에 대해 내담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response of self)하는 내용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부적응적 대인관계 패턴의 내용을 이루며 자기 이해는 문제 영역의 단순한 인식에서부터 패턴의 역사적 기원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까지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Connolly 등(1999)은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자기이해 척도를 구성하였다. SUIP는 세 가지 자료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는데, 첫째, 심리치료 내담자가 보고한

자기 이해한 문제들(Connolly & Strupp, 1996), 둘째, 심리치료 전문가와 대학원생들의 자문, 셋째, CCRT 표준 범주 목록(Barber, Crits-Christoph, & Luborsky, 1990) 등이다. Connolly 등(1999)은 이 세 가지 자료에서 추출한 19개의 문항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용 타당도를 위해서 임상 및 연구 경험이 있는 5명의 전문가에게 평정을 의뢰하여 19개의 문항과 자기이해 척도가 모두 이론과 관련이 높고, 명확한 단어이며 대인관계 패턴의 종류를 대표한다는 동의를 얻어냈다.

SUIP 척도는 인식(recognition) 점수와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 점수의 2가지 점수를 포함한다. 응답자들은 먼저 각 19개의 대인관계 패턴 중 현재 자신에게 문제로 지각되는 문항을 “예” 또는 “아니오”로 평정하게 되는데, 해당되는 문항의 수가 인식 점수가 된다. 다음으로, “예”라고 응답한 즉, 문제 영역으로 표시된 문항을 가지고 그 문항에 대한 자기이해의 수준을 평정하게 된다. 자기이해의 수준은 단순히 문제 영역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대인관계 패턴의 역사적 기원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수준까지 정의하였다. 첫째, 자신의 욕구, 자신의 반응,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인식하는 수준, 둘째, 이런 대인관계가 다른 관계에서 반복된다는 인식을 하는 수준, 셋째, 이러한 욕구와 반응의 대인관계적 기원을 어렵듯이 이해하는 수준, 넷째, 대인관계 패턴의 기원을 명확히 이해하는 수준으로 모두 4수준으로 정의하였다. 문제영역이라고 인식한 문항에 대해 자기이해 수준을 각각 평정하여 평균한 값이 자기이해 점수가 되는데, 1-4점의 범위를 갖게 된다.

Connolly 등(1999)은 이 척도의 구인 타당도

를 알아보기 위해 임상 집단과 대학생 집단 등을 대상으로 SUIP와 관련 검사들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SUIP의 자기이해 점수가 정신과적 증상이나 대인관계 문제, 자기개념과는 상관없이 것으로 예측하였다. 예측대로 자기이해 점수는 임상 집단에서 정신과적 증상(SCL-90-R; Derogatis, 1977; Beck Anxiety Inventory; Beck, Epstein, Brown, & Steer, 1988)과는 상관없이 없었으며, 대인관계문제(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Horowitz, Rosenberg, Baer, Ureño, & Villaseñor, 1988)와도 유의미한 상관없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기개념검사(Beck Self-Concept Test; Beck, Steer, Epstein, & Brown, 1990)와도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인식 점수의 경우 일부 임상집단(약물중독 집단)에서 정신과적 증상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대인관계 문제와는 3개의 모든 임상 집단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자기이해라는 구인이 정신과적 증상이나 대인관계 문제, 자기개념과는 다른 구인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수렴 타당도의 경우 Connolly 등(1999)은 SUIP의 자기이해 점수가 개방성, 심리적 경향성(psychological mindedness), 사고적이고 분석적인 경향, 자기-향상의 경향, 민감성과 높은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즉, 사고적이고 분석적이며, 성취지향적이고 자기-향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민감하고 잘 자각하고 개방적인 사람들이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자기이해를 잘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일반 학생 집단의 경우 자기이해 점수는 감정에 대한 개방성, 사고에 대한 개방성(NEO-PI-R; Costa & McCrae, 1992), 또는 심리적 경향성(Psychological Mindedness;

Lotterman, 1979)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안 장애 집단의 경우는 자기이해 점수가 성격특성 중 사고적이고 분석적인 경향, 그리고 자기-향상과 같은 경향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민감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Personality Research Form; Jackson, 1989). 이것은 대인관계 패턴의 자기이해라는 구인이 성격특성 중 사고적이고 분석적인 경향과 성취지향적이고 자기-향상에 관심을 갖는 경향과 유사하다는 점을 밝혀주었다.

본 연구는 Connolly 등(1999)의 정의에 따라 자기이해를 현대 단기 역동 심리치료 이론에서 기술한 부적응적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이해로 정의하고 Connolly 등(1999)의 연구에 따라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변별 타당도, 수렴 타당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SUIP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적용될지 알아보기 위해 Connolly 등(1999)의 타당화 절차를 반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변별 타당도의 경우 Connolly 등(199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내담자 집단을 대상으로 SCL-90-R과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 척도(정남은, 2001)를 실시하였으며, 일반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자기개념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렴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NEO-PI-R의 사고에 대한 개방성 하위 척도와 감정에 대한 개방성 하위 척도, 그리고 PRF의 이해성 척도를 대신하여 성격진단검사의 사려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PRF 검사는 국내에 소개되거나 출판된 적이 없어 이를 대신할 검사를 찾았는데 국내 여러 검사들을 살펴본 결과 사고적, 숙고적, 분석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검사 중 사려성 검사의 문항 내용이 Connolly 등(1999)이 설명한 PRF 척도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대

신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nnolly 등(1999)이 개발한 SUIP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UIP 척도의 번안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향상시키고, 내적 합치도와 문항-자기이해 점수 상관, 검사-재검사 신뢰도, 변별 타당도, 수렴 타당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대인관계에 대한 자기이해 척도(SUIP) 번안과정

Connolly 등(1999)의 원척도의 대인관계 패턴 19개 문항과 자기이해 수준을 측정하는 4개 문항을 연구자 2명이 공동 번안한 후, 서강대 상담소 수련 과정생 5명에게 의미가 잘 전달되는지 1차 교정하도록 하였다. 그 후, 심리학과 관계없이 외국에서 대학을 다닌 2명에게 영어 원문의 의미가 번역문에서 잘 표현됐는지 2차 교정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박사학위를 가진 상담 및 임상전문가 1명, 상담전문가 2명에게 2차 교정 및 번역된 문항의 의미가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문항 교정 후, 연구자들이 최종적으로 재검토 및 수정한 후 번안 작업을 완료하였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2집단으로 나누었다. 내담자 집단은 임상 집단으로 SCL-90-R과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 척도와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일반 학생 집단은 성격 척도, 즉 NEO-PI-R과 성격진단검사의 사려성 척도와 수렴타당도와 자기개념 척도와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전국 4개 대학 학생생활 상담연구소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들(이하 내담자)과 심리상담을 받고 있지 않는 일반 학생들(이하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2003년 10월부터 6개월 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내담자 총 328명(내담자 61명, 일반 학생 267명)에게 설문을 실시하고 수거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자(15명)와 타당도 문항에서 부적절한 응답을 한 35명을 제외한 자료 278명(내담자 56명, 일반 학생 222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여학생은 151명, 남학생은 125명, 성별 무응답자 2명이었으며,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22.42세(SD=3.09)였다.

내담자

현재 상담을 받고 있는 56명의 대학생들로 남학생 29명, 여학생 27명, 평균연령은 24세(SD=2.13)이었으며, 평균 상담회수는 14회기였다.

일반 학생

상담을 받지 않는 222명의 대학생들 중 남학생은 96명, 여학생은 124명, 성별 무응답자는 2명으로, 평균연령은 22세(SD=3.22)였으며, 1학년 73명, 2학년 91명, 3학년 36명, 4학년 22명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

내담자 대상

대인관계 패턴의 자기이해 척도(SUIP):
 SUIP(Connolly et al., 1999)는 부적응적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자기이해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문항의 수가 인식 점수가 된다. “예”라고 응답한 문항만을 대상으로 각 문항이 기술하는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자기이해 정도를 1~4 수준으로 다시 평정하는데 이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것이 자기이해 점수가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onnolly 등(1999)의 연구에서는 인식 점수의 경우 .70~.97의, 자기이해 점수의 경우 .70-.88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증상 체크 리스트(Symptom Checklist-90-R; SCL-90-R): SCL-90-R은 정신과적 증상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과적 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SCL-90-R은 높은 내적 합치도(.67~.89)와 검사-재검사 신뢰도(.73~.83)를 가지고 있다(최윤미, 1987). 본 연구에서는 SUIP와의 변별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즉, SUIP는 정신과적 증상과는 다른 구인임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었다.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KIIP-C): Horowitz 등(1988)이 개발한 대인관계 문제척도(IIP)를 정남운(2001)이 변안하여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 원형척도로 구성한 것이다. 김영환과 홍상환(1999)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내적 합치도(.93)를 가지고 있으며,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와도 명확한 수렴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재호, 2003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SUIP의 변별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일반 학생 대상

대인관계 패턴의 자기이해 척도(SUIP): 상동

한국판 NEO-PI-R(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Costa와 McCrae(1992)가 개발한 NEO-PI-R은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동조성, 성실성 등의 성격에 대한 5개 요인과 각 요인별 6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검사이다. 본 검사는 안창규와 채준호(1997)가 표준화 작업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검사의 신뢰도는 .74~.91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NEO-PI-R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경험에 대한 개방성 차원 중 감정과 사고의 개방성 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과 사고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onnolly 등(1999)의 연구에 따르면, 개방성 차원이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자기이해의 구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자기개념 질문지: 본 척도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등에 관한 자기개념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신체, 도덕, 성격, 가정, 사회, 능력의 6개 측면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하위 영역별 문항수는 5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의 연구에 따르면, 내적합치도(α)는 .92였으며 2주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이었고, 공존타당도의 경우 Rogenberg의 자존감 척도와 .80의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SUIP척도와 변별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성격진단 검사의 사려성 척도: 성격진단 검사(이상로, 변창진 및 진위교, 1971)의 성격 특성 척도 중 하위 척도의 하나이며 사고적이고 논리적, 분석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고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특성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상로 등(1971)에 따르면 사려성 척도의 반분신뢰도는 .82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3이다. 본 연구에서는 SUIP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타당도 문항: 설문에 성실하게 응하는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 일반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설문에는 Weinberger Adjustment Inventory validity scale(Weinberger, 1991)에서 추출한 3개의 타당도 문항을 포함시켰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동의 여부(예/아니오)를 표시하였다. 문항은 “나는 나보다 어린 사람을 만난 적이 한번도 없다”, “나는 이 질문들에 진실하게 대답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때때로 실수를 한다”였다. 이 중 하나라도 부적절한 응답을 한 경우 자료처리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자기이해 검사지가 제시하고 있는 문항들을 한국 문화에서도 신뢰롭고 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

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Connolly 등(1999)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측정치의 차원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인관계 패턴의 차원을 평가하기 위해 인식 점수를 요인분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담자들은 자신의 대인관계 패턴을 독특하게 드러내는 문항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이해 평정치는 요인을 분석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전체 문항은 대인관계 패턴이라는 하나의 구인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들이 동일한 구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에 관한 내적 합치도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또한 문항의 양호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기이해 항목들의 문항-자기이해 점수 상관을 사용하였다. 이는 이 척도의 채점 방식이 다른 척도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을 구할 경우 각 문항에서 채점되지 않는 문항이 많아 총점의 편차가 각 피험자마다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올바른 상관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문항에 평정한 자기이해 점수와 각 개인의 자기이해 점수와 상관을 구하는 것이 문항의 양호성을 평가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

우선 일반 학생 집단에는 변안된 SUIP 척도와 자기개념질문지, NEO-PI-R 중 사고에 대한 개방성 하위 척도와 감정에 대한 개방성 하위 척도, 성격진단검사의 사려성 하위 척도를 실시하였다. 내담자 집단에는 SUIP 척도와 SCL-90-R, KIIP-C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내적 합치도, 변별타당도, 수렴타당도를 알아보았다. 더불어, SUIP 척도의 시간에 대한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성별, 나이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SUIP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에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관련성

설문지 응답 시 학년, 나이, 전공, 성별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함께 표기하도록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각 하위척도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학년, 성별, 나이 등 어떤 것도 자기인식점수($\beta=.08, .01, -.08, t=1.14, .21, -.66$)와 자기이해 점수($\beta=.04, .08, .02, t=-.20, .35, -.15$)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내적 합치도

SUIP의 자기이해 점수와 인식 점수의 기술적 통계를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SUIP의 각 항목들에 대해 내담자가 “예”라고 대답한 비율은 내담자와 일반 학생 각각 22~95%, 18~89%범주에 포함된다. 이렇게 다양한 분포가 나오는 것은 각 문항이 독립된 대인관계 패턴 내용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내담자와 일반 학생이 자신과 관련 있다고 지각한 대인관계 문제는 각각 평균 11개, 9개였으며, 자기이해 척도의 평균은 각각 2.44, 2.58이었다. 자기이해 항목들의 문항-자기이해점수 상관은 내담자 집단은 .09~.74, 일반 학생 집단은 .4

6~.69사이에 속한다. 또한 각 집단의 인식점수($\alpha=.62, .67$)와 자기이해 점수($\alpha=.63, .68$) 둘다에서 좋은 내적 합치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SUIP가 비슷한 구인을 잘 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변별타당도

각 척도들과 SUIP 점수의 상관뿐만 아니라 각각 측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가정 한 것처럼, SUIP의 자기이해 점수는 내담자가 실시한 SCL-90-R 및 KIIP-C, 일반 학생이 완성한 자기개념 질문지의 전체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SUIP의 자기이해 점수가 정신과적 심각도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재는 측정도구가 아님을 나타내며, 더불어 SUIP로 측정한 자기이해는 참가자들이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로 좋게 평가하는지와도 관련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SUIP의 인식 점수는 SCL-90-R과 KIIP-C 및 자기개념 질문지와는 각각 .39($p<.01$), .34($p<.01$), .27($p<.01$) 정도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인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부적응적 대인관계 패턴의 숫자’라는 인식 점수의 정의와 부합하는 것이다.

수렴타당도

SUIP의 수렴타당도는 인식 점수 및 자기이해 점수를 다른 중요한 성격적 구인들과 비교함으로써 측정되었다. 자기이해 점수는 감정의 개방성과 사고의 개방성, 사려성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지만 인식점수는 감정의 개방성($r=.26, p<.01$)과는

표 1. SUIP: 내담자와 일반학생의 각 문항에 대한 긍정비율 및 자기이해패턴 항목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자기이해점수 상관표

문항	긍정비율	내담자			일반학생			문항-총점 상관
		M	SD	문항-총점 상관	긍정비율	M	SD	
1	50.9	1.79	.79	.13	57.5	2.38	1.20	.52
2	60.0	1.94	.86	.18	62.9	2.37	1.04	.54
3	47.3	2.69	.93	.38	40.3	2.32	1.11	.59
4	78.2	2.60	1.12	.56	69.7	2.60	1.06	.53
5	29.1	2.56	1.21	.57	19.5	2.51	1.08	.67
6	29.1	1.69	.70	.09	19.9	1.98	1.04	.58
7	49.1	2.19	.88	.58	28.5	2.33	1.12	.46
8	36.4	2.50	1.00	.74	34.4	2.61	1.11	.58
9	65.5	2.67	1.15	.73	55.2	2.68	1.07	.54
10	80.0	2.50	1.00	.60	78.3	2.47	1.05	.62
11	94.5	2.83	1.02	.62	88.7	3.02	1.04	.55
12	61.8	2.63	1.11	.60	42.5	2.40	1.11	.55
13	21.8	2.42	1.16	.41	18.1	2.35	1.25	.53
14	83.6	2.37	1.08	.65	74.2	2.74	1.11	.66
15	67.3	2.27	.96	.63	58.4	2.45	1.04	.65
16	43.6	2.58	1.14	.56	44.8	2.65	.98	.50
17	69.1	2.43	.99	.56	48.9	2.40	1.09	.50
18	52.7	2.38	1.08	.66	34.8	2.61	1.11	.69
19	40.0	2.70	.97	.35	33.5	3.00	1.22	.46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정이나 사고에 대해 개방적이고 분석적이고 사고적이라도 자기이해의 정도가 깊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SUIP의 자기이해라는 구인이 경험의 개방성이나 사려성과는 전혀 다른 구인이라는 것으로 수렴 타당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Connolly 등(1990)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이해 점수뿐만 아니라 인식 점수 또한 개방성 및 심리적 경향성과도 유의미한 상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감정에 대해 개방적일수록 자신의 대인관계 패턴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자기이해의 척도 평균 및 내적 합치도, 자기이해 및 인식 점수

척도	내담자	일반 학생
자기이해 점수		
표본크기	56	222
평균	2.44	2.58
표준편차	.60	.65
범위	1-4	1-4
내적합치도(α)	.63	.68
인식 점수		
표본크기	56	222
평균	10.68	9.08
표준편차	3.14	3.33
범위	5-17	1-19
내적합치도(α)	.62	.67

주. 인식 점수는 19개 문항 중 자신과 관련있는 것으로 선택한 항목들의 전체 개수이다. 자기이해 점수는 자신과 관련있다고 선택한 대인관계 항목에 대한 자기이해 정도에 대한 평가치이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SUIP가 시간에 따라서도 안정성을 지닌 척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36명 대상으로 한달 간격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인식 점수($r=.62, p<.01$)와 자기이해 점수($r=.47, p<.01$) 둘 다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덧붙여서, 인식 점수($t=1.09, p=.28$)와 자기이해 점수($t=1.93, p=.06$) 중 어떤 것도 한달 간격동안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SUIP가 안정적인 구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Connolly 등(1999)의 SUIP 척도를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Connolly 등(1999)은 이 척도가 현대 정신역동 이론의 내용이나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내담자들이 보고한 대인관계 패턴과 일치하는

표 3. 다른 주요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SUIP 측정치와의 상관계수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	자기이해	인식
내담자					
SCL-90-R	55	175.18	52.60	.18	.39**
KIIP-C	53	180.04	39.50	.14	.34**
학생					
자기개념질문지	219	89.38	5.85	-.01	.27**
NEO 감정 개방성	221	30.42	3.56	.12	.26**
NEO 사고 개방성	221	27.67	4.69	.06	-.06
성격진단검사의 사려성	218	20.46	5.36	.09	.08

** $p<.01$

좋은 내용 타당도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두 집단이 각 문항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8%~97%로 Connolly 등(1999)의 연구(14%~69%)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문항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도 잘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 척도는 집단적으로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점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SUIP가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자기이해의 구인에 맞는 신뢰로운 측정도구임이 밝혀졌다. 인식점수는 내담자 집단과 일반 학생 집단에서 모두 비교적 좋은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alpha = .62, .67$). 자기이해 점수도 두 집단에서 좋은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alpha = .63, .68$). 문항-자기이해 점수 상관을 살펴보면 내담자 집단의 경우 1, 2, 6번을 제외한 모든 문항이 .35 이상의 상관을 보이고 있고, 일반 학생 집단은 모든 문항이 .35이상의 상관을 보였다. 또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1개월의 간격을 두고 실시했을 때 인식점수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자기이해 점수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유의미하였으나 그리 높지 않아 자기이해라는 구인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는 구인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SUIP의 자기이해 점수나 인식 점수 모두 성이나 나이, 교육연한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별타당도를 살펴보면, 자기이해 점수는 증상이나 대인관계 문제를 측정하는 도구와는 구분되는 좋은 변별 타당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식 점수는 증상이나 대인관계 척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Connolly 등(1999)의 연구에서도 나

타난 패턴으로 이러한 결과는 인식 점수의 정의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인식 점수는 부적응적 대인관계 문제의 숫자를 의미하므로 부적응적 대인관계 패턴이 많을수록 많은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현대 정신역동이론(Luborsky, 1984; Strupp & Binder, 1984)이 정의한 것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이해 점수는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나 대인관계 문제의 수와는 상관이 없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측정한 자기 개념과도 상관이 없었다. 이것은 자기이해라는 구인이 증상이나 대인관계 문제, 자기 개념과는 다른 독특한 구인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수렴 타당도는 일반 학생 집단의 성격특성과 자기이해 점수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비교가 된 성격특성은 자신의 감정과 사고에 대한 개방성과 사려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이해 점수가 이 세 가지 성격특성과 모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nolly 등(1999)의 연구에서도 감정이나 사고에 대한 개방성 척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감정이나 사고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구인과 자기이해라는 구인은 전혀 다른 구인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즉,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를 개방한다고 하는 것과 자신의 대인관계 패턴을 이해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구인일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기이해는 부적응적 대인관계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며,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개방성이나 사려성은 자기 이해를 얻기 위한 필요조건은 되지만 그러한 성격특성이 치료 상황 밖에서 자기이해를 획득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Connolly 등(1999)의 연구에서는 자기이

해 점수가 분석적이고 숙고적이고 호기심 많은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PRF의 이해 척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 본 연구에서 그와 비슷한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성격진단검사의 사려성 척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Connolly 등(1999)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사고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특성과 부적응적 대인관계 패턴에 대한 자기이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이해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밝히지 못하였다. 앞으로 SUIP의 자기이해라는 구인이 다른 어떤 성격 특성 또는 심리적 구인과 상관이 높은지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SUIP 척도의 유용성을 살펴보면, SUIP 척도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대인관계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내담자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유용한 도구라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증상 척도들이나 성격 측정 도구와 함께 사용하여 증상이나 성격 특성과 연관된 대인관계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이해라는 구인이 심리치료의 변화과정이자 변화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SUIP는 상담의 과정 및 성과 측정치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기이해 또는 통찰과 관련된 연구에도 사용될 수 있다. 특히 SUIP 척도의 문항 내용이 현대 단기 역동 심리치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 상담, 특히 대인관계 문제를 다루는 상담의 과정과 성과의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첫째, Connolly 등(1999)도 지적했듯이 SUIP에 포함된 문항이 모든 부적응적 대인관계 패

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능한 부적응적 대인관계 패턴을 넓혀야 한다. Connolly 등(in press)도 최근에 SUIP 개정판을 내놓으면서 문항의 수를 28문항으로 늘렸다. 또한 우리나라 내담자들만의 독특한 대인관계 패턴이 있는지 조사하여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이해 점수의 범위가 1~4점으로 작다는 것이다. 이점 때문에 수렴 타당도를 측정했을 때 성격특성 점수와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Cummings 등(1992)이 통찰 수준을 9수준으로, Grenyer와 Luborsky (1996)가 대인관계 숙달 수준을 6수준으로 나눈 것에 비추어 자기이해 수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렴 타당도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자기이해라는 구인이 정신과적 증상이나 대인관계 문제, 자기개념과는 다른 구인이라는 점을 밝혀주긴 하였으나 어떤 성격 특성 또는 심리적 구인과 유사한지 밝혀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SUIP를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한 연구로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였다.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변별 타당도에서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도구임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제한점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내담자와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부적응적 대인관계 패턴을 포함시킨 한국판 SUIP 척도 개정판을 구성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는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SUIP는 내담자의 관점에서 구성된 척

도이다. 내담자의 자기 보고가 중요하고 다수의 내담자나 피험자를 연구할 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척도에서 나온 점수와 전문가의 평정간의 상관 관계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내담자의 자기 보고와 전문가들의 평정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SUIP 척도의 수렴 타당도를 높여줄 것이다.

셋째, SUIP 척도를 사용하여 실제로 단기 역동 심리치료에서 자기이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 상담이 진행되면서 자기이해에 변화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자기이해가 치료 성과에 중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기 치료에서 치료적 효과를 높이고 시간에 따른 변화의 내용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영역이 될 것이다. 또한 자기이해의 정의에 맞게 상담에 따라 자기이해 점수의 변화를 측정해 본다면 준거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SUIP 척도가 상담의 과정과 성과를 연구하는데 있어 내담자의 자기이해의 정도를 보다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측정하여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를 활성화시킬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영환, 홍상환 (1999). 대인관계 평가도구의 표준화 연구: 대인관계문제검사와 원형 척도. *성곡논총*, 30, 537-594.
- 안창규, 채준호 (1997). NEO-PI-R의 한국 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443-473.
- 윤재호 (2003).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 (KIAS)의 개발 및 타당화. 가톨릭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 (1971). 성격진단검사.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이장호 (1989). 상담심리학 입문. 박영사.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편 연차학술발표논문집*, 277-290. 서울: 편자.
- 정남운 (2001).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척도의 구성. *심리과학*, 10(1), 117-132.
- 정방자 (1985). 정신역동적 상담과정에서의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반응 변화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윤미 (1987). 상담자의 반응 의도와 상담회기의 효율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Dewald, P. A. (1978). 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김기석 역. 고려대학교 출판부.
- Barber, J. P., Crits-Christoph, P., & Luborsky, L. (1990). A guide to the CCRT standard categories and their classification. In L. Luborsky & P. Crits-Christoph (Eds.),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CRT method* (pp. 37-50). New York: Basic Books.
- Beck, A. T., Epstein, N., Brown, G., & Steer, R. A.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93-897.
- Beck, A. T., Steer, R. A., Epstein, N., & Brown, G. (1990). Beck Self-Concept Test. *Journal of*

-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 191-197.
- Connolly, M. B., Crits-Christoph, P. C., Shelton, R. C., Hollon, S., Kurtz, J., Barber, J. P., Butler, S. F., Baker, S., & Thase, M. E. (1999).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measure of self-understanding of interpersonal patter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472-482.
- Connolly, M. B., & Strupp, H. H. (1996). A cluster analysis of client reported psychotherapy outcomes. *Psychotherapy Research*, 6, 30-42.
- Costa, P. T., & McCrae, R. R. (1992).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Cummings, A. L., Martin, J., Hallberg, E. T., & Slemmon, A. G. (1992). Memory for therapeutic events, session effectiveness, and working alliance in short-term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306-312.
- Derogatis, L. R. (1977). *The SCL-90: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I for revised version*.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Hospital.
- Dewald, P. A. (1969). *Psychotherapy: A Dynamic Approach(2nd Ed.)*. New York: Basic Books.
- Ellis, A. (1979). *Rational Emotive Therapy*, In R. T. Corsini, *Current Psychotherapies*. ITASCA: Peacock, 185-229.
- Freud, S. (1958). Further recommendations in the technique of psycho-analysis II: Recollection, repeating and working through: Further recommendations in the technique of psycho-analysis. In J. Strachey (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2, pp. 147-156). London: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14).
- Grenyer, B. F.S., & Luborsky, L. (1996). Dynamic change in psychotherapy: Mastery of interpersonal confli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411-416.
- Hill, C. E., Helms, J. E., Spiegel, S. B., & Tichenor, V. (1988). Development of a system for assessing client reactions to therapist interven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222-233.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no, G., & Villasen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 Jackson, D. (1989). *Personality research form manual*. Port Huron, MI: Sigma Assessment Systems, Inc.
- Kaplan, H. I., & Sadock, B. J. (1991). *Comprehensive Glossary of Psychiatry and Psychology*. Maryland: Williams & Wilkins.
- Kivlighan, D. M. Jr., Multon, K. D., & Patton, M. J. (2000). Insight and symptom reduction in time-limited psychoanalytic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50-58.
- Lotterman, A. C. (1979). *A questionnaire measure of psychological mindedness and the capacity to benefit from psychotherapy*. Unpublished manuscript.

- Luborsky, L. (1984). *Principles of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A manual for supportive-expressive treatment*. New York: Basic Books.
- Luborsky, L., & Crits-Christoph, P. (1990). *Understanding transference: The core conflictual relationship theme method*. New York: Basic books.
- Morgan, R. W., Luborsky, L., Crits-Christoph, P., Curtis, H., & Solomon, J. (1982). Predicting the outcomes of therapy using the Penn Helping Alliance rating metho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 397-402.
- Strupp, H. H., & Binder, J. L. (1984). *Psychotherapy in a new key: A guide to time-limited dynamic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 Weinberger, D. A. (1991). *Social-emotional adjustment in older children and adults: I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Weinberger Adjustment inventory*.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원고접수일 : 2005. 3.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5. 6. 7.

게재결정일 : 2005. 6. 10.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Measure of Self-Understanding of Interpersonal Patterns

Myoung-Sik Choi

Ah-Rang Yun

Ki-Hak Lee

Sogang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anslate a measure of self-understanding of interpersonal patterns(SUIP) into Korean and to evaluat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UIP, which Connolly et al(1999) developed. For this purpose, the measure was translated and then administered to a client sample and a student sample. The SUIP consisted of self-understanding score and recognition score. Internal consistency was .62, .67 for recognition score, and .63, .68 for self-understanding score. Test-retest reliability was .62 for recognition score and .47 for self-understanding score. The measure demonstrated discriminant validity with SCL-90-R,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KIIP-C), Self-concept inventory. And the self-understanding score of SUIP also demonstrated convergent validity with reflectiveness scale and openness to feelings and ideas scale. In addition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ractical use of the SUIP is discussed.

Key words : *The measure of self-understanding of interpersonal patterns, Self-understanding score, Recognition score*

부 록. 대인관계 패턴의 자기이해 척도

다음 검사는 여러분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입니다. 질문을 차례로 읽어 가면서 평소의 자신 모습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면 (예),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니오)에 V표 하세요.		
1.	나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을 “구제”해줘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려고 애쓴다.	예 아니오
2.	나는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을 지도해줘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해주게 된다.	예 아니오
3.	나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더라도 가만히 있는다.	예 아니오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기분을 잘 몰라주면 상처를 받는다.	예 아니오
5.	나는 다른 사람을 내 옆에 뒤편에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떠나려 할 때도 내 옆에 두기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하려한다.	예 아니오
6.	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다른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도록 부추긴다.	예 아니오
7.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받아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관점이 다를 땐 화가 나거나 마음을 닫게 된다.	예 아니오
8.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져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도록 내버려 두기가 힘들다.	예 아니오
9.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굉장히 매달리는 편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거부할 때는 상처를 받는다.	예 아니오
10.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는 거절당했다고 느낀다.	예 아니오
11.	나는 누군가를 신뢰하고 싶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할 때는 거리를 둔다.	예 아니오
12.	나는 누군가가 나를 수용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때는 내 자신이 하찮게 느껴진다.	예 아니오
13.	나는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면 버림받은 것 같다.	예 아니오
14.	나는 누군가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길 바란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기대를 저버릴 경우 실망한다.	예 아니오
15.	나는 다른 사람들이 승인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하려는 일에 반대를 하면 기분이 나쁘다.	예 아니오
16.	나는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도 나에게 너무 의존하려고 하면 거리를 둔다.	예 아니오
17.	나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는다.	예 아니오
18.	나는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길 원한다. 하지만 그들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땐 거리를 두게 된다.	예 아니오
19.	나는 갈등을 피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에도 가만히 있는다.	예 아니오

앞의 문항 중 (예)라고 응답한 문항의 번호를 아래에 모두 적은 후 다음 보기의 (a), (b), (c), (d) 네 개의 보기 중 해당되는 것에 V 표시하세요.

예시) 만약 앞의 설문에서 3, 6, 19번 문항에 (예)라고 응답하였다면,
[문항번호]

(3) (a) V (b) (c) (d)

(6) (a) (b) (c) (d) V

(19) (a) (b) V (c) (d)

.

.

.

- Ⓐ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느끼고 행동한다는 것을 알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다
- Ⓑ 나는 내 삶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방식이 하나의 패턴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다.
- Ⓒ 나는 내가 이런 식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과거 인간관계에서 겪은 경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그 관계가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 Ⓓ 나는 내가 이런 식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과거 인간관계에서 겪은 경험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한다.

문항번호

()	(a) <u> </u>	(b) <u> </u>	(c) <u> </u>	(d) <u> </u>
()	(a) <u> </u>	(b) <u> </u>	(c) <u> </u>	(d) <u> </u>
()	(a) <u> </u>	(b) <u> </u>	(c) <u> </u>	(d) <u> </u>
()	(a) <u> </u>	(b) <u> </u>	(c) <u> </u>	(d) <u> </u>
()	(a) <u> </u>	(b) <u> </u>	(c) <u> </u>	(d) <u> </u>
()	(a) <u> </u>	(b) <u> </u>	(c) <u> </u>	(d) <u> </u>
()	(a) <u> </u>	(b) <u> </u>	(c) <u> </u>	(d) <u> </u>
()	(a) <u> </u>	(b) <u> </u>	(c) <u> </u>	(d) <u> </u>
()	(a) <u> </u>	(b) <u> </u>	(c) <u> </u>	(d) <u> </u>
()	(a) <u> </u>	(b) <u> </u>	(c) <u> </u>	(d) <u> </u>

이하 생략